

[기자회견문] UNI는 한국 언론노조의 미디어 공공성 수호 투쟁을 지지합니다.

10월 30일 유니글로벌유니온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UNI Media, Entertainment & Arts) 부문 대표들은 오늘 서울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를 멈추고 공영방송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의 가맹조직인 전국언론노동조합(NUMW)과 한 목소리를 내려 한다.

1년 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KCC)의 위원장으로 언론장악 경력을 가진 인물(이동관)을 임명했고, 최근에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내리고 언론사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짜뉴스 근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제를 통해 언론사를 폐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영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압박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자격과 저널리즘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공영방송은 무너지고 상업방송을 통해서만 뉴스가 유통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24시간 뉴스 채널인 YTN의 공공부문 지분을 매각했다. 이는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이들의 손에 더 많은 매체를 쥐어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인 평가와 인지도를 가진 공공 자산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특혜를 받은 민간 사업자는 한국 국민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유니글로벌유니온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UNI Media, Entertainment & Arts) 부문 대표들의 공동 성명은 다음과 같다.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보도를 침묵시켜 지지율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언론 정책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어온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리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한국"*

시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전 세계 언론 종사자들은 연대할 것이다."